

# 『東醫寶鑑』處方の 약재 용량 분석을 통한 四象方 적응증 확장 연구 -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例로 들어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sup>1</sup>  
이병욱<sup>1</sup> · 백진웅<sup>1</sup> \*

## Extended indications of Four-Constitution Medicinal formula analyzing composition on *Dongeuibogam* formula - The case of Bojungyikgi-tang for So-Eum type -

Lee Byung-Wook<sup>1</sup> · Baek Jin-Ung<sup>1</sup> \*

<sup>1</sup>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end indications of Four-Constitution Medicinal formulas by comparing with formulas on *Dongeuibogam*(東醫寶鑑), focusing on their composition.

**Method** : 1. We analyzed the composition of Sanghan formulas(傷寒方) and non-classical formulas(後世方) which are mentioned on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focusing on their composition.

2. We analyzed the composition of formulas on *Dongeuibogam*(東醫寶鑑) comparing with Bojungyikgi-tang for So-Eum type.

**Result & Conclusion**: 1. Je-Ma Lee didn't say the Sanghan formulas(傷寒方) and non-classical formulas(後世方) with criterion of composition on his book.

2. We finally selected one formulas(Insamhwanggi-tang) and its effect as similar formulas with Bojungyikgi-tang for So-Eum type.

**Key Words** : *Dongeuibogam*(東醫寶鑑),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Extended indications Bojungyikgi-tang(補中益氣湯), Four-Constitution Medicine formula.

## I. 序 論

\* 교신저자 : 白晋雄 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E-mail : mukjagan@naver.com Tel : 051-510-8452  
접수일(2013년 7월26일), 수정일(2013년 8월13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16일).

四象醫學의 原典인 『東醫壽世保元』에는 모두 67개의 體質處方이 수록되어 있는데<sup>1)</sup>, 이것만으로는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체질 병증에 효율적으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6, 701, 716, 724.

로 대처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체질별 基本方들의 適應證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sup>2)</sup>.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 『東醫四象大典』<sup>3)</sup>에서는 다양한 證狀別로 각 體質別 基本方 및 應用方을 서술하였고, 『四象醫學性理臨床論』<sup>4)</sup>과 『東醫四象醫學講座』<sup>5)</sup>에서는 각 基本方別 適應證과 加減法을 서술하였고, 『改訂增補四象醫學』<sup>6)</sup>에서는 證狀別 基本方 및 基本方別 解說를 모두 서술한 예가 있다. 물론 임상가 개인 경험에 주로 의존한 이러한 예들도 분명히 일정한 가치와 의의가 있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된 四象方의 適應證 확장을 위해선 원전에 근거한 문헌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자는 이미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수록 四象方의 적응증 확장에 관한 연구”<sup>7)</sup>,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연구”<sup>8)</sup>, “東醫寶鑑을 이용한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 확장 연구”<sup>9)</sup>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四象方 처방명과 같거나 유사한 처방을 동의보감에서 발췌 및 분석하여 四象方 적응증 확장을 시도한 연구로 일정한 의의를 갖고 있으나 동시에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즉 四象方 처방명과 유사한 『東醫寶鑑』처방을 그 처방 구성 내용과 상관없이 해당 四象方과 관련 깊은 처방으로 해석한다는 점과

四象方 처방명과 유사하지 않으면 비록 처방 구성 약제가 비슷해도 해당 四象方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四象方과 같거나 유사한 약제 배합으로 처방이 구성되어 있는 『東醫寶鑑』수록 처방을 발췌 및 분석함으로써 四象方 적응증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한 예로 補中益氣湯證을 검토하여<sup>10)</sup>, 일정한 성과를 얻었기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연구 방법과 내용

1) 『東醫寶鑑』의 原文은 內醫院 元刻本에 의거하여 1814년에 전주 完營에서 修訂 및 補完한 完營重刊本을 底本으로 한 『新增補對譯 東醫寶鑑』<sup>11)</sup>에서 인용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에는 소위 傷寒方과 後世方을 四象人 경험방으로 분류한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23方,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13方 巴豆藥 6方,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 10方, 元明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9方,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4方, 唐宋明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9方이 있다. 또 이제마 선생이 제시한 少陰人 처방 24개 중에 42종의 少陰人 약제, 少陽人 처방 17개 중에 37종의 少陽人 약제, 太陰人 처방 24개 중에 45종의 太陰人 약제, 太陽人 처방 2개 중에 10종의 太陽人 약제가 수록되어 있다<sup>12)</sup>. 이 두 자료를 활용해 이제마 선생이 四象人 경험방으로 규정한 傷寒方과 後世方 내에 각 체질 약제가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분석하였다<sup>13)</sup>. 이

2)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적응증 확장에 관한 研究(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 대한원전한의학회지. 24권 3호. 2011. pp.27-28.

3) 朴爽彦 編譯.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

4) 金洲 著. 四象醫學 性理臨床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8.

5) 柳周烈 著. 東醫四象醫學講座. 서울. 大星文化社. 1998.

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編.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7)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의 적응증 확장에 관한 研究(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 대한원전한의학회지. 24권 3호. 2011. pp.27-47.

8) 박진우,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研究. 대한원전한의학회지. 25권 1호. 2011. pp.17-29.

9) 박창환,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 확장 研究. 한국한의학회지. 18권 2호. 2011. pp.91-100.

10) 補中益氣湯을 예로 선택한 이유는 類用되는 중요한 處方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1)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1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編.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71-681, 698-705, 714-720, 723-724.

13) 예를 들어, 少陰人 약제가 전체 용량의 75%를 차지하는 처방 A, B가 있다고 할 때, 이처럼 少陰人 약제가 차지하

제마 선생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傷寒方과 後世方을 분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일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채택하고 없다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東醫寶鑑』처방과 四象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3)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의 비중을 분석하는 방법은 약재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약재의 분량을 포함하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의 종류뿐만 아니라 분량까지도 처방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4)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 유사한 『東醫寶鑑』처방을 선별할 때에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2)에서 일정한 기준이 발견되면 이를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가 전체 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처방을 선별하기로 하였다. 전체 용량의 70% 이상을 같은 약재 조합이 차지하고 있는 처방들이라면 서로 유사한 효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7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sup>14)</sup>

5) 4)에서 선별한 『東醫寶鑑』처방의 주치와 효능을 분석하여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새로운 적응증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상방 적응증 확장 방법의 예를 제시하였다.

## 2.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人 경험방으로 분류된 傷寒方과 後世方 분석

### 1) 少陰人 경험 傷寒方 23방, 後世方 19방 분석

는 비중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A, B의 체질적 치우침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 25%의 약재 중 체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립적 약재가 많다든지 혹은 少陽人 약재가 많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용량 비율을 기준으로 四象方과 東醫寶鑑 처방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첫 번째 연구이므로 가급적 명확한 기준을 갖추기 위해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4)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학자에 따라서는 80% 이상, 혹은 90% 이상의 일치율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 경험방으로 상한론에서 甘草瀉心湯, 薑附湯, 桂枝湯, 當歸四逆湯, 大承氣湯, 桃仁承氣湯, 麻仁丸, 麻黃附子甘草湯, 麻黃附子細辛湯, 蜜導法, 半夏瀉心湯, 半夏散, 附子湯, 四順理中湯, 四逆湯, 生薑瀉心湯, 小承氣湯, 理中湯, 人蔘桂枝湯, 茵陳蒿湯, 抵當湯, 赤石脂禹餘糧湯, 厚朴半夏湯의 23개 처방을 선별해 제시했고, 後世方으로 桂枝附子湯, 藿香正氣散, 木香順氣散, 霹靂散, 補中益氣湯, 秘方化滯丸, 三稜消積丸, 三物白散, 三味蓼黃湯, 蘇合香元, 十全大補湯, 如意丹, 溫白元, 茵陳橘皮湯, 茵陳附子湯, 茵陳四逆湯, 瘰癧丸, 香砂六君子湯, 香蘇散<sup>15)</sup>의 19개 처방을 선별해 제시하였다. 이들 처방을 구성 약재와 함께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少陰人 경험 傷寒方 23방, 後世方 19방

처방명	처방 구성 약재
甘草瀉心湯	甘草 2錢 乾薑 黃芩 各 1錢 5分 製半夏 人蔘 各 1錢 大棗 3枚
薑附湯	炮乾薑 1兩 炮附子 1枚, 附子生用 名曰 白通湯
桂枝湯	桂枝 3錢 芍藥 2錢 甘草 1錢 生薑 3片 大棗 2枚
當歸四逆湯	芍藥 當歸 各 2錢 桂枝 1錢 5分 細辛 通草 甘草 各 1錢
大承氣湯	大黃 4錢 厚朴 枳實 芒硝 各 2錢
桃仁承氣湯	大黃 3錢 桂心 芒硝 各 2錢 甘草 1錢 桃仁留尖 10枚
麻仁丸	大黃蒸 4兩 枳實 厚朴 芍藥 各 2兩 麻子仁 1兩 5錢 杏仁 1兩 2錢 5分
麻黃附子甘草湯	麻黃 甘草 各 3錢 炮附子 1錢
麻黃附子細辛湯	麻黃 細辛 各 2錢 炮附子 1錢
蜜導法	蜜熬 入皂角末
半夏瀉心湯	製半夏 2錢 人蔘 甘草 黃芩 各 1

1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71-676.

	湯	錢5分 乾薑 1錢 黃連 5分 生薑 3片 大棗2枚
	半夏散	製半夏 炙甘草 桂枝 各 2錢
	附子湯	白朮 4錢 白芍藥 白茯苓 各 3錢 附子炮 人蔘 各 2錢
	四順理中湯	人蔘 白朮 乾薑 炙甘草 各 2錢
	四逆湯	炙甘草 6錢 炮乾薑 5錢 生附子 1枚
	生薑瀉心湯	生薑 半夏 各2錢 人蔘 乾薑 各1錢5分 黃連 甘草 各1錢 黃芩 5分 大棗3枚
	小承氣湯	大黃 4錢 厚朴 枳實 各 1錢 5分
	理中湯	人蔘 白朮 乾薑 各 2錢 甘草炙 1錢
	人蔘桂枝湯	炙甘草 桂枝 各 1錢8分 白朮 人蔘 乾薑 各 1錢5分
	茵陳蒿湯	茵陳 1兩 大黃 5錢 梔子 2錢
	抵當湯	水蛭炒 虵蟲炒去足翅 桃仁留尖 各 10枚 大黃蒸 3錢
	赤石脂禹餘糧湯	赤石脂 禹餘糧 各 2錢5分
	厚朴半夏湯	厚朴 3錢 人蔘 半夏 各 1錢 5分 甘草 7分 5厘 生薑 7片
	後世方	桂枝附子湯
藿香正氣散		藿香 1錢5分 紫蘇葉 1錢 厚朴 大腹皮 白朮 陳皮 半夏 甘草 桔梗 白芷 白茯苓 各 5分 生薑 3片 大棗 2枚
木香順氣散		烏藥 香附子 青皮 陳皮 厚朴 枳殼 半夏 各1錢 木香 縮砂 各5分 桂皮 乾薑 炙甘草 各3分 生薑 3片 大棗 2枚
霹靂散		附子 1箇 炮過 以冷灰 培半時取出 切半箇 細剉 入臘茶 1錢
補中益氣湯		黃芪 1錢5分 甘草炙 人蔘 白朮 各 1錢 當歸 陳皮 各7分 升麻 柴胡 各3分 生薑3片 大棗2枚
秘方化滯丸		三稜 蓬朮 莖煨 各 4錢 8分 半夏 麴 木香 丁香 青皮 陳皮 並去白 黃連 各 2錢5分 巴豆肉醋浸一宿

		熬乾 6錢
	三稜消積丸	三稜 蓬朮 神麴 各 7錢 巴豆和皮 入米同炒黑去米 青皮 陳皮 茴香 各 5錢 丁香皮 益智仁 各 3錢
	三物白散	桔梗 貝母 各3錢 巴豆去皮心熬研如脂 1錢
	三味蔘黃湯	吳茱萸 3錢 人蔘 2錢 生薑 4片 大棗 2枚
	蘇合香元	白朮 木香 沈香 麝香 丁香 安息香 白檀香 訶子皮 香附子 華撥 犀角 朱砂 各 2兩 朱砂半爲衣 蘇合油 入安息香膏內 乳香 龍腦 各 1兩
	十全大補湯	人蔘 白朮 白芍藥 炙甘草 黃芪 肉桂 當歸 川芎 白茯苓 熟地黃 各 1錢 生薑3片 大棗2枚
	如意丹	川烏炮 8錢 檳榔 人蔘 柴胡 吳茱萸 川椒 白茯苓 白薑 黃連 紫苑 厚朴 肉桂 當歸 桔梗 皂角 石菖蒲 各 5錢 巴豆霜 2錢5分
	溫白元	川烏炮 2兩 5錢 吳茱萸 桔梗 柴胡 石菖蒲 紫苑 黃連 乾薑炮 肉桂 川椒炒 赤茯苓 皂角炙 厚朴 人蔘 巴豆霜 各 5錢
	茵陳橘皮湯	茵陳 1兩 陳皮 白朮 半夏 生薑 各 1錢
	茵陳附子湯	茵陳 1兩 炮附子 炙甘草 各 1錢
	茵陳四逆湯	茵陳 1兩 炮附子 炮乾薑 炙甘草 各 1錢
	瘴疽丸	茵陳 梔子 大黃 芒硝 各 1兩 杏仁 6錢 常山 鱉甲 巴豆霜 各 4錢 豆豉 2錢
	香砂六君子湯	香附子 白朮 白茯苓 半夏 陳皮 厚朴 白豆蔻 各1錢 人蔘 甘草 木香 縮砂 益智仁 各5分 生薑3片 大棗2枚
	香蘇散	香附子 3錢 紫蘇葉 2錢5分 陳皮 1錢 5分 蒼朮 甘草 各 1錢 生薑 3片 蔥白 2莖

또 이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 新定處方 24개를 제시했는데, 그 속에는 42종의 少陰人 약제가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제마 선생이 제시한 少陰人 약재

少陰人 藥材名
甘草灸 乾薑炮 鷄 桂枝(桂皮, 官桂) 藿香 當歸 大腹皮 大蒜 大棗 木香 半夏 白豆蔻 白芍藥 白朮 白何首烏 附子 砂仁 山查肉 生薑 蘇葉(紫蘇葉) 小茴香 罌粟殼 良薑 五靈脂 吳茱萸 益母草 益智仁 人蔘 茵陳 赤石脂 赤何首烏 枳實 陳皮 蒼朮 川芎 清蜜 青皮 破故紙 巴豆 香附子 黃芪 厚朴

표 1에 제시된 처방 속에 표 2에 제시된 少陰人 약재가 차지하는 용량 비중을 분석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少陰人 경험 傷寒方 23방, 後世方 19방 속 少陰人 약재의 용량 비율

처방명	少陰人 약재 용량 비율(%)
甘草瀉心湯	68.75 <sup>16)</sup>
薑附湯	100
桂枝湯	50.00
當歸四逆湯	52.94
大承氣湯	40.00
桃仁承氣湯	11.11
麻仁丸	31.37
麻黃附子甘草湯	60.00
麻黃附子細辛湯	20.00
蜜導法	蜜과 白角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량 불명확
半夏瀉心湯	60.00
半夏散	66.67
附子湯	57.14
四順理中湯	100
四逆湯	100
生薑瀉心湯	73.68
小承氣湯	42.86
理中湯	100
人蔘桂枝湯	100
茵陳蒿湯	0
抵當湯	0
赤石脂禹餘糧湯	50.00

厚朴半夏湯	100
桂枝附子湯	63.64
藿香正氣散	44.44
木香順氣散	58.72
霹靂散	100
補中益氣湯	69.41
秘方化滯丸	52.29
三稜消積丸	38.30
三物白散	14.29
三味蔘黃湯	68.49
蘇合香元	23.08
十全大補湯	50.00
如意丹	25.88
溫白元	26.32
茵陳橘皮湯	28.57
茵陳附子湯	16.67
茵陳四逆湯	23.08
瘴疽丸	0
香砂六君子湯	69.57
香蘇散	68.18

표 3을 보면 이제마 선생이 少陰人 경험방으로 제시한 傷寒方 23방과 後世方 19방 중에 포함된 少陰人 약재의 용량 비율은 최대 100%에서 최소 0% 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薑附湯, 四順理中湯, 四逆湯 등의 7개 처방은 少陰人 약재의 용량 비중이 100%이고 茵陳蒿湯, 抵當湯 등 3개 처방은 0%이다. 그리고 나머지 32개 처방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桃仁承氣湯 11.11%, 麻仁丸 31.37%, 大承氣湯 40%, 桂枝湯 50%, 麻黃附子甘草湯 60%, 生薑瀉心湯 73.68% 등처럼 0 ~ 100% 사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표 3에 의하면, 이제마 선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少陰人 약재를 일정 용량 이상 포함하고 있는 처방을 少陰人 경험 傷寒方 및 後世方으로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2) 少陽人 경험 傷寒方 10방, 後世方 9방 분석

이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陽人 경험방으로 상한론에서 桂婢各半湯, 大靑龍湯, 大陷胸湯, 白虎湯, 小柴胡湯, 小陷胸湯, 腎氣丸, 十棗湯, 五苓

16) 소수집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散, 猪苓湯의 10개 처방을 선별해 제시했고, 後世方으로 導赤散, 肥兒丸, 生熟地黃丸, 消毒飲, 水銀熏鼻方, 涼膈散, 六味地黃湯, 荊防敗毒散, 黃連猪肚丸<sup>17)</sup>의 9개 처방을 선별해 제시하였다. 이들 처방을 구성 약재와 함께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少陽人 경험 傷寒方 10방, 後世方 9방

처방명	처방 구성 약재
桂婢各半湯	石膏 2錢 麻黃 桂枝 白芍藥 各 1錢 甘草 3分 生薑 3片 大棗 2枚
大靑龍湯	石膏 4錢 麻黃 3錢 桂枝 2錢 杏仁 1錢5分 甘草 1錢 生薑 3片 大棗 2枚
大陷胸湯	大黃 3錢 芒硝 2錢 甘遂末 5分
白虎湯	石膏 5錢 知母 2錢 甘草 7分 粳米 半合
小柴胡湯	柴胡 3錢 黃芩 2錢 人蔘 半夏 各 1錢 5分 甘草 5分
小陷胸湯	半夏製 5錢 黃連 2錢 5分 瓜蒌大者 4分の 1
腎氣丸	熟地黃 4錢 山藥 山茱萸 各 2錢 澤瀉 牡丹皮 白茯苓 五味子 各 1錢 5分
十棗湯	芫花微炒 甘遂 大戟炒 等分
五苓散	澤瀉 2錢 5分 赤茯苓 猪苓 白朮 各 1錢 5分 肉桂 5分
猪苓湯	猪苓 赤茯苓 澤瀉 滑石 阿膠 各 1錢
導赤散	木通 滑石 黃柏 赤茯苓 生地黃 山梔子 甘草梢 各 1錢 枳殼 白朮 各 5分
肥兒丸	胡黃連 5錢 使君子肉 4錢 5分 人蔘 黃連 神麩 麥芽 山查肉 各 3錢 5分 白茯苓 白朮 灸甘草 各 3錢 蘆薈煨 2錢 5分
生熟地黃丸	生乾地黃 熟地黃 玄參 石膏 各 1兩
消毒飲	牛蒡子 2錢 荊芥穗 1錢 生甘草

	防風 各 5分
水銀熏鼻方	黑鉛 水銀 各 1錢 朱砂 乳香 沒藥 各 5分 血竭 雄黃 沈香 各 3分
涼膈散	連翹 2錢 大黃 芒硝 甘草 各 1錢 薄荷 黃芩 梔子 各 5分
六味地黃湯	熟地黃 4錢 山藥 山茱萸 各 2錢 澤瀉 牡丹皮 白茯苓 各 1錢 5分
荊防敗毒散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荊芥穗 防風 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各 1錢 薄荷 少許
黃連猪肚丸	(雄猪肚 1個 黃連 小麥炒 各 5兩 天花粉 白茯苓 各 4兩 麥門冬 2兩

또 이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陽人 新定處方 17개를 제시했는데, 그 속에는 37종의 少陽人 약재가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제마 선생이 제시한 少陽人 약재

少陽人 藥材名
甘甘遂 羌活 輕粉 苦蔘 瓜蒌仁 枸杞子 金銀花 獨活 牡丹皮 木通 沒藥 薄荷 防風 白茯苓 覆盆子 山茱萸 山梔子 生地黃(熟地黃) 石膏 柴胡 連翹 牛蒡子 乳香 忍冬藤 猪苓 赤茯苓 前胡 朱砂 地骨皮 知母 車前子 澤瀉 玄參 荊芥 滑石 黃栢 黃連(川黃連)

표 4에 제시된 처방 속에 표 5에 제시된 少陽人 약재가 차지하는 용량 비중을 분석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少陽人 경험 傷寒方 10방, 後世方 9방 속 少陽人 약재의 용량 비율

처방명	少陽人 약재 용량 비율(%)
桂婢各半湯	100
大靑龍湯	21.86
大陷胸湯	9.09
白虎湯	59.83

1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98-701.

小柴胡湯	35.29
小陷胸湯	23.80
腎氣丸	72.41
十棗湯	33.33
五苓散	73.33
豬苓湯	80.00
導赤散	75.00
肥兒丸	16.88
生熟地黃丸	75.00
消毒飲	62.50
水銀熏鼻方	34.09
涼膈散	38.46
六味地黃湯	84.00
荊防敗毒散	50.00
黃連豬肚丸	17.86

표 6을 보면 이제마 선생이 少陽人 경험방으로 제시한 傷寒方 10방과 後世方 9방 중에 포함된 少陽人 약재의 용량 비율은 최대 100%에서 최소 9.09%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桂婢各半湯은 少陽人 약재의 용량 비중이 100%이고 大陷胸湯은 9.09%이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처방은 肥兒丸 16.88%, 十棗湯 33.33%, 荊防敗毒散 50.00%, 消毒飲 62.50%, 生熟地黃湯 75%, 六味地黃湯 84.00% 등처럼 0 ~ 100% 사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표 6에 의하면, 이제마 선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少陽人 약재를 일정 용량 이상 포함하고 있는 처방을 少陽人 경험 傷寒方 및 後世方으로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3) 太陰人 경험 傷寒方 4방, 後世方 9방 분석

이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陰人 경험방으로 상한론에서 桂麻各半湯, 大柴胡湯, 麻黃湯, 調胃承氣湯의 4개 처방을 선별해 제시했고, 後世方으로 葛根解肌湯, 麻黃定喘湯, 生脈散, 石菖蒲遠志散, 牛黃清心丸, 二聖救苦丸, 楞根皮丸, 調中湯, 黑奴丸<sup>18)</sup>의 9개 처방을 선별해 제시하였다. 이들 처방을 구성 약재와 함께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太陰人 경험 傷寒方 4방, 後世方 9방

처방명	처방 구성 약재	
傷寒方	桂麻各半湯	麻黃 1錢 5分 白芍藥 桂枝 杏仁 各 1錢 甘草 7分 生薑3片大棗 2枚
	大柴胡湯	柴胡 4錢 黃芩 白芍藥 各 2錢 5分 大黃 2錢 枳實 1錢 5分
	麻黃湯	麻黃 3錢 桂枝 2錢 甘草 6分 杏仁 10枚生薑3片大棗 2枚
	調胃承氣湯	大黃 4錢 芒硝 2錢 甘草 1錢
後世方	葛根解肌湯	葛根 升麻 黃芩 桔梗 白芷 柴胡 白芍藥 羌活 石膏 各 1錢 甘草 5分
	麻黃定喘湯	麻黃 3錢 杏仁 1錢5分 黃芩 半夏 桑白皮 蘇子 款冬花 甘草 各1錢 白果21箇
	生脈散	麥門冬 2錢 人蔘 五味子 各 1錢
	石菖蒲遠志散	石菖蒲 遠志 等分
	牛黃清心丸	山藥 7錢 甘草炒 5錢 人蔘 蒲黃炒 神麴炒 各 2錢5分 犀角 2錢 大豆黃卷炒 肉桂 阿膠炒 各 1錢7分 白芍藥 麥門冬 黃芩 當歸 白朮 防風 朱砂水飛 各 1錢5分 柴胡 桔梗 杏仁 白茯苓 川芎 各 1錢3分 牛黃 1錢 2分 羚羊角 龍腦 麝香 各 1錢 雄黃 8分 白蘞 乾薑 炮 各 7分 金箔 140箔內 40箔爲衣 大棗 20枚
	二聖救苦丸	大黃 4兩 豬牙皂角 2兩
	楞根皮丸	楞根白皮 爲末
	調中湯	大黃 1錢 5分 黃芩 桔梗 葛根 白朮 白芍藥 赤茯苓 藥本 甘草 各 1錢
	黑奴丸	麻黃 大黃 各 2兩 黃芩 釜底煤 芒硝 竈突墨 樑上塵 小麥奴 各 1兩

또 이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陰人 新定處方 24개를 제시했는데, 그 속에는 45종의 太陰人 약재가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1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714-716.

표 8. 이제마 선생이 제시한 太陰人 약재

太陰人 藥材名	
葛根 甘菊花 乾栗(黃栗) 藜木 瓜蒂 款冬花	
桔梗 金箔 蘿菥子 鹿茸 大豆黃卷 大黃 麻黃	
麥門冬 白果 栝子仁 白芷 白蘘 使君子 麝香	
山藥 酸棗仁 桑白皮 犀角 石菖蒲 升麻	
蓮子肉 羚羊角 烏梅 五味子 龍腦 龍眼肉	
牛黃 熊膽 遠志 薏苡仁 紫背浮萍 梲根白皮	
豬牙皂角 天門冬 蒲黃 杏仁 黃芩 蟾蜍	

표 7에 제시된 처방 속에 표 8에 제시된 太陰人 약재가 차지하는 용량 비중을 분석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太陰人 경험 傷寒方 4방, 後世方 9방 속 少陽人 약재의 용량 비율

처방명	太陰人 약재 용량 비율(%)	
傷寒方	桂麻各半湯	34.72
	大柴胡湯	36.00
	麻黃湯	46.51
	調胃承氣湯	52.63
後世方	葛根解肌湯	52.63
	麻黃定喘湯	90.48
	生脈散	75.00
	石菖蒲遠志散	100
	牛黃清心丸	40.49
	二聖救苦丸	66.67
	梲根皮丸	100
	調中湯	57.89
黑奴丸	50.00	

표 9를 보면 이제마 선생이 太陰人 경험방으로 제시한 傷寒方 4방과 後世方 9방 중에 포함된 太陰人 약재의 용량 비율은 최대 100%에서 최소 34.72%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石菖蒲遠志散과 梲根皮丸은 太陰人 약재의 용량 비중이 100%이고 桂麻各半湯은 34.72%이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처방은 牛黃清心丸 40.49%, 葛根解肌湯 52.63%, 二聖救苦丸 66.67%, 生脈散 75.00%, 麻黃定喘湯 90.48% 등처럼 0 ~ 100% 사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비록 少陰人과 少陽人 경험 처방으로 제시된 경우와 비교할 때 최소치가 높은 등 대체로 해당 체질 약재 용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마 선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太陰人 약재를 일정 용량 이상 포함하고 있는 처방을 太陰人 경험 傷寒方 및 後世方으로 선정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표 9에서 일정한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4) 太陽人 경험 傷寒方과 後世方 분석

이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太陽人 경험 단방은 제시하였으나 복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太陽人 경험 傷寒方과 後世方 분석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 5) 考察

표 3, 표 6, 표9의 분석 과정에서 살펴봤듯이 이제마 선생이 체질 약재의 용량 비율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체질별 경험 傷寒方과 後世方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기존 醫書에서 論旨 전개에 필요한 病證과 處方 관련 조문을 인용한 후 이제마 선생 자신의 의견 및 新定 四象 處方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된 『東醫壽世保元』의 記述 방식을 보면 체질 경험방의 선정 이유가 본초의 사상속성 보다는 病證 쪽에 치우쳐 있어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補中益氣湯과 관련된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부분을 보면, “張仲景 傷寒論曰 發熱 惡寒 脉浮者 屬表 卽 太陽證也 太陽傷風 脉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齋齋惡寒 漸漸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 桂枝湯主之 危亦林 得效方曰 四時瘟疫 當用 香蘇散 龔信 醫鑑曰 傷寒 頭痛 身疼 不分表裏 證 當用 藿香正氣散”<sup>19)</sup>라고 기존 醫書에서 필요한 내용을 인용한 후,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 惡寒者 卽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有汗者 此 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1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p.650-651.

三日連服而 汗不止 病不愈則 當用 桂枝附子湯 人蔘 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sup>20)</sup>라며 기존의 病證을 四象人 病證으로 전환하여 해설하고 또 적합한 四象方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봐도 처방의 본초 구성 보다는 병증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증만을 중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제마 선생은 병증과 함께 처방을 분명히 제시했고, 또 일부 처방의 경우에는 “十全大補湯 人蔘 白朮 白芍藥 炙甘草 黃芪 肉桂 當歸 川芎 白茯苓 熟地黃 各 1錢 生薑 3片 大棗 2枚 ~ 今考更定 此方 當去白茯苓 熟地黃 當用 砂仁 陳皮”<sup>21)</sup>의 예에서처럼 약재 몇 가지의 加減을 통해 새로운 체질 처방을 創方했음을 밝혔기 때문에 傷寒方 혹은 後世方 처방의 약재 구성 역시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마 선생이 체질 경험 傷寒方과 後世方을 선정 및 제시할 때 일부는 병증을 중시하고 일부는 처방 구성 내용을 중시했다고 추론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병증을 중시해 기존 처방을 인용했을 때는 체질 약재의 용량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고, 처방 구성 내용을 중시해 기존 처방을 인용했을 때는 체질 약재의 용량 비율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이제마 선생이 체질 경험 傷寒方 및 後世方을 선정할 때 체질 약재 용량 비율과 관련한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 분석 혹은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3. 『東醫寶鑑』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 유사 처방 선별 및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제마 선생이 체질 약재 용량 비율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갖고 체질 경험 傷寒方 및 後世方을 선정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四象方과 같거나 유사한 약재 배합으로 처방이 구성되어 있는 『東醫寶鑑』수록 처방을 발췌 및 분석함으로써 四象方 적응증을 확장

하기 위해서는 이제마 선생의 것 이외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세울 수 있겠지만, 필자는 특정 체질방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를 중량비로 환산하고 『東醫寶鑑』의 처방도 중량비로 환산하여 두 처방의 중량비 차의 절대 값이 0.6 이하일 때, 즉 중량비 기준 70% 이상 유사할 때 해당 체질방과 『東醫寶鑑』의 처방을 유사한 처방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東醫寶鑑』처방의 주치와 효능을 해당 체질방 적응 가능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는데, 少陰人 補中益氣湯을 그 예로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 1) 少陰人 補中益氣湯 처방 구성

이제마 선생이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한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처방 구성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少陰人 補中益氣湯 처방 구성

補中益氣湯	人蔘 黃芪 各 3錢 炙甘草 白朮 當歸 陳皮 各 1錢 藿香 蘇葉 各 3分 或 各 5分 生薑 3片 大棗 2枚 <sup>22)</sup>
-------	---

2) 少陰人 補中益氣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 이상 포함하고 있는 『東醫寶鑑』처방

표 10을 보면 용량이 명확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藿香과 蘇葉의 용량을 각 3분 혹은 5분이라고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生薑 3片和 大棗 2枚라고 한 부분이다. 이처럼 무게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는 『東醫寶鑑』처방에도 다수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藿香과 蘇葉 용량처럼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은 쪽 용량을 기준으로 했다. 가급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하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生薑 3片和 大棗 2枚는 모두 1錢으로 계산했다. 즉 生薑 1片은 0.333錢, 大棗 1枚는 0.5錢으로 본 것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크기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지만 이 정도면 대강의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酒水各半煎

2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51.

2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2.

2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7.

의 경우 술은 약물 구성에서 제외했고, ‘各等分’은 1錢, ‘減半’은 各等分の 半인데 各等分이 1錢이므로 0.5錢, ‘少許’는 0.1錢, ‘葱白 1莖’은 0.333錢이라고 보는 등 명확하게 무게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자주 나오는 경우는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 외에도 예를 들어 흔히 사용되지는 않으면서 ‘豬腎 1개’처럼 무게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모두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일단 해당 약재 포함 처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기준으로 少陰人 補中益氣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東醫寶鑑』 처방을 발췌한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少陰人 補中益氣湯 구성 약재가 전체 용량의 70% 이상인 『東醫寶鑑』 처방

	少陰人 補中益氣湯 약재 용량 비율(%)
人蔘黃芪湯	74.56

① 人蔘黃芪湯<sup>23)</sup>

처방 구성 : 人蔘二錢 黃芪 白朮 陳皮各一錢 當歸 白茯苓 甘草炙 各五分 薑三片 棗二枚

주치 및 효능 : 治虛損少氣<sup>24)</sup>

3) 고찰

표 11에서 보듯이 少陰人 補中益氣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으로 포함하고 있는 『東醫寶鑑』 처방을 1개 선별할 수 있었다. 약물 용량의 관점에서 볼 때 『東醫寶鑑』 처방 중 이 한 개의 처방, 즉 人蔘黃芪湯을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가장 유사한 처방이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모태가 된 後世方 補中益氣湯 조차 선별되지 않은 채 수 천 개의 『東醫寶鑑』 처방 중에서 단 한

개의 처방만 선별되었다는 것은 본 논문에서 기준으로 삼은 ‘70%의 약재 용량’ 비율이 매우 엄격한 기준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 처방의 주치와 효능을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2. 『東醫寶鑑』에서 발췌한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증

연번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증
①	少陰人の 虛損少氣

표 12에 제시된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증은 말 그대로 ‘가능증’으로 少陰人 補中益氣湯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약재의 효능도 살펴야 하고, 약물 상호간의 관계도 살펴야 하고, 병증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는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III. 結 論

특정 四象方과 같거나 유사한 약재 배합으로 처방이 구성되어 있는 『東醫寶鑑』 수록 처방을 발췌 및 분석함으로써 四象方 적용증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한 예로 補中益氣湯證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제마 선생이 체질 약재 용량 비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체질 경험 傷寒方 및 後世方을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少陰人 補中益氣湯 구성 약재를 전체 용량의 70%으로 포함하고 있는 『東醫寶鑑』 처방으로 人蔘黃芪湯의 1개를 선별할 수 있었다.

3. 『東醫寶鑑』에 수록된 人蔘黃芪湯의 주치와 효능을 문헌적 근거를 갖춘 少陰人 補中益氣湯 적용 가능증으로 상정할 수 있었다.

23) 『東醫寶鑑』에는 처방 구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은 3개의 黃芪桂枝湯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아래의 처방 구성을 가진 한 개만 해당한다.

24)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민문화사. 서울. 2012. p.258.

## 參考文獻

### <논문>

1. 홍진우, 이명렬,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東醫壽世保元 收錄 四象方の 적응증 확장에 관한 研究(補中益氣湯을 예로 들어). 대한원전한의학회지. 24권 3호. 2011. pp.27-47.
2. 박진우,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適應證 확장 研究. 대한원전한의학회지. 25권 1호. 2011. pp.17-29.
3. 박창환, 이병욱, 백진웅. 東醫寶鑑을 이용한 太陰人 葛根解肌湯의 適應證 확장 研究.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8권 2호. 2011. pp.91-100.

### <단행본>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1. p.672, 676, 677, 701, 716, 724. pp.671-681, 650-651, 698-705, 714-720, 723-724.
2.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12. p.258.
3. 朴爽彦 編譯.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
4. 金洲 著. 四象醫學 性理臨床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8.
5. 柳周烈 著. 東醫四象醫學講座. 서울. 大星文化社. 1998.

